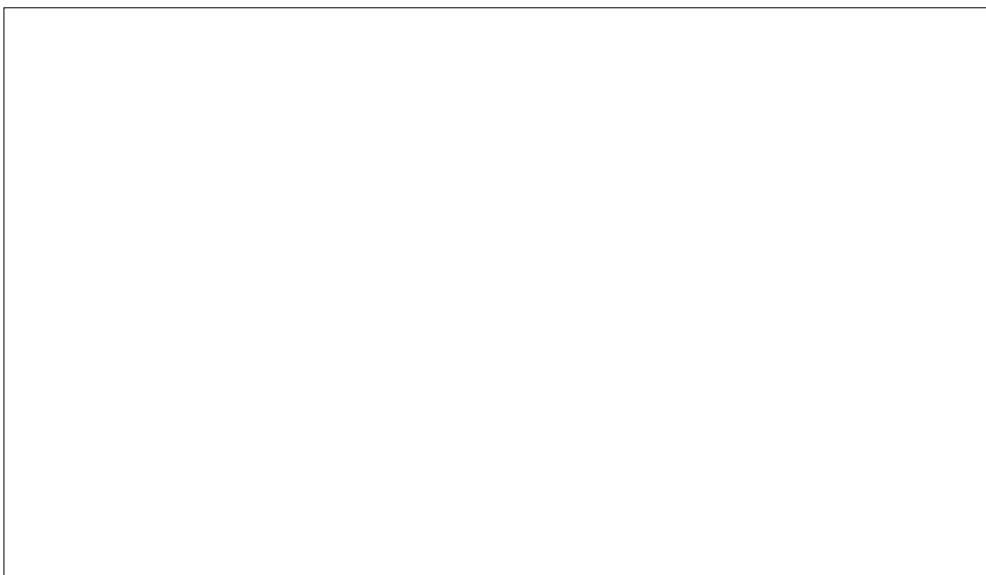
	보 도 자 료	작성	홍보담당
		보도자료 문의사항 TEL	기획운영팀장 오윤옥 010-2225-3915
		자료구성	총 3쪽

광주사회서비스원, 소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 마련 위한
 한·일 국제세미나 국회에서 공동개최

○… 25일 광주사회서비스원(원장 김대삼)은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혜영 (더불어민주당), 이종성(국민의힘), 장혜영(정의당) 등 3당 국회의원,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연대와 함께 ‘신경·근육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한·일 국제세미나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사진은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이 ‘한국 신경·근육 장애인 돌봄체계 실태 현황’을 발제하고 있는 모습.



<관련 보도자료>

-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국회에서 신경·근육장애인의 생명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한일 국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.
-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5일 오후1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최혜영(더불어민주당), 이종성(국민의힘), 장혜영(정의당) 등 3당 국회의원,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연대와 함께 한일 신경·근육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펼쳤다고 밝혔다.
- 이는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최근 통합한 광주복지연구원이 수년 전부터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육장애인 실태조사, 루게릭 장애인 생애사 연구 등 소수 장애인의 실태와 복지 증진을 위해 이어온 연구 활동과 연결된 것으로, 장애인 정책에 관심 가져온 최혜영 등 3당 국회의원들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고 알려졌다.
- 세미나에서는 일본 후나고 야스히코 참의원(레이와신센구미당)이 ‘일본 신경·근육장애인의 개호 보장’에 대해 발제했으며,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가 ‘일본 신경·근육장애인 의료행위 가능성’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.

□ 한국측에서는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이 ‘한국 신경·근육장애인 돌봄체계 실태 현황’을,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배현우 대표가 ‘최중증 신경·근육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생활정책’을 각각 발제했으며,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희경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.

□ 세미나를 주최한 광주사회서비스원 김대삼 원장은 “광주시는 근육장애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할 정도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앞장서왔으며, 그 연장선상에서 광주 사서원의 한 축이 된 광주복지연구원의 소수 장애인에 대한 연구 노력이 있었다”며 “이번 한일 국제 컨퍼런스로 양국의 소수 장애인 연구와 정책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라며, 나아가 ‘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’를 내실화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